

네델란드 기독교 학교 종교교육 이슈와 함의¹⁾

류기철

논문초록

근래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학교 폭력과 고질적 문제인 수능 중심 교육에서 빚어지는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공립 교육은 해결책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올바른 인성과 성경적 원리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태동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기독교적 원리와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정부의 방관과 간접적 탄압으로 경영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역사가 20년도 채 되지 않는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이기에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 대안 학교의 커리큘럼 중 종교교육 수업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미진하다. 현대 기독교 학교 운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네델란드에서의 종교 교육에 있어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이슈들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종교 교육의 이슈, 3장에서는 종교 교육과 종교적 헌신의 관계 이슈, 그리고 4장에서는 다-종교 학교에 대한 이슈이다. 네델란드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각 이슈들에 대해 의의와 비평과 제안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네델란드처럼 다 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독교 대안 학교의 종교교육과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종교교과과정을 보완하며, 채플 시간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과목들과의 연계를 위해 통합적 세계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종교수업 자체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강조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함이 중요하다.

주제어: 종교교육, 기독교학교, 다문화, 정체성, 다-종교 학교

I. 들어가면서

근래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학교 폭력과 고질적 문제인 수능 중심 교육에서 빚어지는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공립 교육은 해결책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올바른 인성과 성경적 원리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태동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 학교도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기독교적 원리와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 현상, 그리고 정부의 방관과 간접적 탄압으로 경영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기독교 대안학교가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박상진과 조인진이 밝힌 바대로 한국에 약 100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대안학교의 구체적인 하위 분류체계를 마련하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유익한 시도가 최근에 연구되었다(박상진·조인진, 2011: 121). 이런 유형 분류 연

1) 본 논문은 2011년도 고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은 역사가 매우 짧은 기독교 대안학교이기에 그 정체성이 아직도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계속해서 학계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연구와 방향 제시가 되어져야 미래에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의미 있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여러 종류의 기독교 학교가 시도되어지고 있으나 실제 미션스쿨이 아닌 기독교 학교 발전의 역사는 10-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 대안 학교의 커리큘럼 중 종교 교육(기독교교육)²⁾ 수업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미진하다. 기독교 학교가 대안학교로서 기타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기독교 교육적 특성이다.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가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야만 하는 당위성과 그 기초적인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요체가 된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 학교의 핵심 커리큘럼인 종교 교육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기독교 학교 운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에서의 종교 교육에 있어서의 최근의 이슈들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1장에서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종교 교육의 이슈; 2장에서는 종교 교육과 종교적 헌신의 관계 이슈; 그리고 3장에서는 다-종교 학교에 대한 이슈이다. 네덜란드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서 각 이슈들에 대해 의의와 비평과 제안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처럼 다 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독교 대안 학교의 종교교육과정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기독교 학교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네덜란드의 기독교 학교에서³⁾ 논의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이슈들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선(先)논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의 내용과 발전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종교 교육 이슈

네덜란드는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변화가 미미한 단일 사회와 단일 문화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종전의 세속적이며 비기반적(de-pillarised) 사회에서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던 사회(plural post-modern society)로 전환되었다(Ter Avest et al., 2008: 308).⁴⁾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종교와

2) 두 단어가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연구 대상의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도 종교교육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3) 네덜란드에서 19세기에 들어 최초의 기독교 학교가 학부모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학교의 교과 과정과 기독교 학교가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싸워야 했던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위해서는 헤로 벤 부루멜린의 책을 참고하라. Van Brummelen, Harro W. (1986). *Telling the Next Generati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Calvinist Christian School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p. 11-34.

4) Ter Avest, Bakker, Bertram-Troost와 Miedema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일 문화 사회 속에 공존하는 종교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pillariz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Ter Avest, I., C. Bakker, G. D. Bertram-Troost, and S. Miedema (2007). Religion and Education in the Dutch Pillarized and Post-Pillarized educational system: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Debates. in *Religion and Education in Europe. Developments, Contexts and Debates* edited by R. Jackson, S. Miedema, W. Weisse, and J. P. Willaime, Münster/New York/München/Berlin: Waxmann. 1960년 이후로 네덜란드는

다른 인종이 비록 공존하고 있었으나 이 시기에 들어와서 사회가 다원적 언어, 다원적 문화, 다원적 인종으로 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황에서도 종전보다 더욱 다양한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망명자(refugees)와 이민자(immigration)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민 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민자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 교육의 필요성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 미더마(Miedema)는 하버마스(Habermas)가 주장한 대로 외국인들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 이민 오면서 가지게 되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기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적 관점을 확대 증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Miedema and Bertram-Troost, 2008: 124). 가장 눈에 띄이는 실례는 이슬람의 성장을 들 수 있다.⁵⁾ 무슬림들은 문명화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해 살면서도 그들이 자라왔던 전통적인 이슬람 종교와 옛 문화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인들이 근대 이후로 생성해 왔던 사고방식인 전통 종교에 대한 비 종교화, 혹은 탈-종교화의 현상과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포스터모던 사회적 현상과 사고체계를 통해서도 다양성, 다문화, 다종교가 그 핵심이기에 이 두 가지 사회적 힘(social forces)은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생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로 전통적 종교에 반해 인간 이성이 상위 점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닌 것이 되었다. 오히려 과거에 사라졌거나 혹은 최소한 영향력을 잃었다고 믿었던 전통 종교들이 다시금 부활해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로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강하게 인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화 되는 사회를 볼 때 확실히 드러난다. 종교가 가지는 내적 외적 영향력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네덜란드는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모던 사회에서는 전통적 종교이던 혹은 새로운 종교이든 다양한 언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무시 될 실체가 아니라 포스터모던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성의 범주 안에서 인정되어야 할 실체가 되었다. 특별히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종교와 종교 교육이 네덜란드의 공립학교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달아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네덜란드에서 현재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주요 이슈는 “공공 영역을 비 종교화(de-religionising)하려는 그 동안의 시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Miedema and Bertram-Troost, 2008: 125). 왜냐하면 종교가 포함하고 있는 긍정적 영향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 커뮤니티에 대한 수용적 태도, 법률과 정계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감

전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되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960년 이후로 늘어났고 그들을 따라서 이민 온 가족과 자녀들의 숫자가 1980년부터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5) 지난 수 십 년간 이슬람 노동자들의 이주와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준 이민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에는 과거의 종교적 색채가 한층 더 다양해지게 된다. 학교로는 이슬람 학교가 40개 정도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어서 네덜란드의 학교는 크게 공립, 기독교(개신교/카톨릭, 사립(비종교), 그리고 이슬람 학교로 구분된다. 이슬람 학교는 전체 학교 수의 1%를 차지한다(Ter Avest et al., 2008: 309).

과 도덕적 삶 등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에 있어서 포스터모던의 현상인 다문화 다종교적 관점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움직임에 대한 결과로서 종교가 더 이상 개인적 영역의(private domain) 세계가 아니라 혹은 종교적 색깔이 짙은 종립학교에서만 다루어야 할 교과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일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되 과거처럼 단순히 종교에 대한 정보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이 대두되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 왜 공립학교에서조차도 종교를 단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더 심화된 종교교과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현재 세계적인 이슈인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을 통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치, 문화, 경제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로만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boundary)가 모호해 지고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종교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타 문화인, 타 종교인과의 만남(encounter)을 통해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상대의 문화,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라고 하는 영역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은 “변혁적 자원(transformative resources)”을 제공해야 한다고 미더마는 주장한다(Miedema and Bertram-Troost, 2008: 129). 이 표현의 뜻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에 의해서 현대가 미디어, 상업주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세속적 식민지화(colonization) 초래 현상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속적 식민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특징적인 표현인데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종교는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변혁(transform)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적 입장임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강조하였다(Kuyper, 1931: 41-77). 물론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 이러한 역할은 공적(public)영역과 개인(private)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종교 교육이라는 것이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각 지역의 문화와 특수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업과 미디어와 세계를 이어주는 교통을 통해서 각 커뮤니티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뿐 만 아니라 공립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이 현실적 시각을 뛰어 넘는(transforming) 비판적, 조직적, 궁극적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원리적 궁극적 믿음을 얻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에서 하는 종교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종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방식을 넘어서서 학생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교육, 즉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미더마는 강조한다(Miedema and Bertram-Troost, 2008: 129). 인간의 내면과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라고 할 때에 종교가 종교로서 학생의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식 전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종교 자체의 특성상 객관적으로만 가르친다고 하

면 종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관적 믿음에 기초해 있는 것이기에 종교교육의 의미와 효과는 극단적으로 저해되고 낮아진다.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교사의 종교성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 정체성 형성에 건강한 접근법이 아닌 라고 볼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과 신념과 윤리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형성하는(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도와주는데 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더마가 피력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중립학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즉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시민형성을 위한 교육의 기초가 ‘다른’ 문화와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빈번히 일어나는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로서 종교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 자신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 가능해 지고 그 과정의 결과로 자신의 세상 바깥에 있는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문함으로써 ‘다른’ 관점과 진리를 수용하거나 타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모든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를 설득력 있게 논의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조차도 종교, 특히 기독교의 위상만큼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더마의 시민교육을 위한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대한 준비로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교 교육이 교과의 일부로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를 드러낸 것은 그의 기여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 실행된다고 하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할 부분이다. 종교마다 궁극적인 실체가 다르며 세계관이 다르며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가 다르며(예를 들어 업보, 인간의 무지,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약함 등)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또한 다른 것이 종교들의 차이점이다. 세상의 문제와 해결책을 다르게 규정하고 우주와 인생의 절대자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종교 교육의 교과과정이 구성될 것인가 예서는 종파 간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II. 종교 교육과 종교적 헌신과의 관계성 연구

이제 종교교육이 교과과정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은 그리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종교교육이라도 종전의 단순 지식전달 이상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피력이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카톨릭과 기독교 학교가 전체 학교 수에 있어서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중립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⁶⁾

6) 초등학교 숫자와 초등학생 수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4년 - 2008년 사이 초등학교 수 공립(33-34%), 프로테스탄트(30%), 카톨릭(30-31%) 기타 사립학교(6-7%). 그리고 학생 수의 백분율은 2004-2008년 사이에 공립(31%), 프로테스탄트(27-28%), 카톨릭(34%), 기타 사립학교(7-8%). 5년간의 통계 자료를 통해 각 종교 간의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일정 비율로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를 참조하라. Middleton, Priscilla and Van de Ven, Ad (2009). *Key Figures 2004-2008: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The Dutc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그래서 1장에서 다루었던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구되고 있는 논문은 종교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종립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학교가 설립한 교육목표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세계관, 특히 그들의 종교적 헌신과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6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 것이다.

21세기 초의 상황을 볼 때에 네덜란드에 있는 많은 교단이 세운 사립 기독교 학교에 종교적 다양성(plurality)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독교 학교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대도시 내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은 학생들 혹은 특별히 학생들의 부모가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특성과 견학 이념인 기독교적 정신에 동의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면 부모나 학생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 입학이 허락되고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기독교 학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들이 무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배경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학교 입학과 수학이 가능해 진 것이다. 기독교 학교 내에서도 종교의 다양화 현상이 조성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종교의 다양화 현상이 학생들의 신앙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바가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해 화란 자유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신학과에서 공동으로 경험연구를 하게 되어 그 결과가 발표 되었는데 흥미로운 결과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Bertram-Troost et al., 2009: 17-27). 그 연구 방법은 학교의 실질적 책임자들이며 결정권자들인 이사회 멤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 모두 사용되었으나 연구 논문에는 양적 연구의 결과만 보고되고 있다. 선정된 학교는 4개 학교이며 이 학교들 모두 공식적으로 기독교(개신교)학교이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했다. 도시에 있는 학교와 시골에 있는 학교도 포함했고 재학생 숫자 측면에서도 그 사이트가 서로 다른 학교들이었다. 그 중 3학교는 란스타드(Randstad-네덜란드 서쪽에 위치한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이다. 첫 번째 학교는 학생이 1200명이며 중간 크기의 도시에 있었고, 2번째와 3번째 학교는 화란의 주요 도시에 있으며 두 번째 학교의 학생 숫자는 1000명이며 특별히 외국인 배경의 학생이 많은 학교이었다. 세 번째 학교는 다소 작은 학교인데 6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이며 네 번째 학교는 900명의 학생들이 재학생 숫자이며 시골에 위치해 있었다. 특히 이 학교는 강한 기독교 배경을 가진 학생이 많았다. 총 설문지 조사에 응답한 숫자는 518명의 학생이며 나이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들이었다(Bertram-Troost et al., 2009, 19).

이 연구의 조사 결과를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Bertram-Troost et al., 2009: 25-26):

1.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받은 종교 교육과 실제로 종교적 헌신 혹은 믿음의 상관관계는 약하다.
2. 학생들의 실제적 신앙적 헌신과 그들의 세계관/가치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3. 학생들의 세계관은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종교적 배경은 바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종교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4.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라온 신앙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7)
5. 학교에서의 환경이 학생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뛰어난데 그것은 교

- 사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서로 존중(respect)하는 분위기로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확신(certaint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 종교교과 수업을 통해 다른 종교와 자신의 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는 정도는 종교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appreciate) 배우는가에 따라 비례한다.
 7. 종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⁸⁾

이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학교에서 실시되어 왔던 종교 교육이 학생들의 신앙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 한다. 위의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기존 종교교과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진행이 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수업 시간뿐 만 아니라 수업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시간 할애를 통해서 관계 형성(relationship building)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학생들의 세계관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의 협력에 대한 더욱 긴밀한 협조와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받은 종교교육과 종교적 헌신(commitment)과의 연관 관계가 약하다고 하는 실험결과를 보아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의 종교적 헌신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이 기대한 것 보다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네덜란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하는 종교 수업(Religious Education)이 비록 가정에서 주는 영향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종교교과 수업 내용에 대한 질적 향상,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격 형성, 특별히 종교적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며 그러한 면에서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한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세 영역이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에 영향을 미칠 때 최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로 다시 확인하고 보강하고 있다.

IV. 다-종교(Multi-Religious) 학교에 대한 이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신부들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노년

7)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해야 할 연구 과제가 더 남아 있음을 Bertram-Troost와 공동 연구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부모들에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자녀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했는가 하는 연구과제와 둘째로 청소년들의 종교적 정체성 발달에 어떤 구체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이다(Bertram-Troost et al., 2009: 25).

8) 이 연구 결과는 이미 2006년에 이루어졌던 Bertram-Troost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Bertram-Troost, G. D. (2006), *Belief in the Denominational Education: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Secondary Education*. Zoetermeer: Boekencentrum.

층 인구의 급증(고령화)과 저 출산의 문제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공공(복지) 지출 증가율(1990년 이후 연 11%)⁹⁾을 통해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한 2017년부터는 한국의 생산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자료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도 다문화 가정이 차별을 받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보도¹⁰⁾ 등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미래는 다 문화, 다 종교의 사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OECD의 지적대로 한국은 다가올 다문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한 지역에서 공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차 대전의 주역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아리안족의 순수성과 유대인에 대한 중요성에 불타올랐던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유럽에 공존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최근인 2011년 7월 22일에도 네덜란드에서 멀지 않은 노르웨이에서 반 이슬람(anti-Islam) 성향의 브레이비크(Breivik)가 유럽의 좌파 정치인들이 유럽을 다문화 사회로 만들며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에 분노해 77명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터졌다.¹¹⁾ 이처럼 유럽에 비유럽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도 뒤 이어 이주해 오면서, 특히 그들의 종교 문화적 배경이 유럽의 기독교적 문화 배경과 전혀 상반되는 이슬람 문화 배경이기에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분쟁이 혹은 분쟁의 가능성이 깊이 잠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형성이 된다. 관용(tolerance)와 공존(co-existence)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와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인류가 가진 큰 숙제이다.¹²⁾

이런 이슈, 즉 인종과 종교가 다른 배경의 시민들이 한 나라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는 교육을 통해 접근해 보려는 과감한 시도를 제시하고 있어서 학술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교육 시스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단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학교와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1917년 이후로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일정 수준의 정부의 방침(학업목표달성, 국가 학력 평가)을 따르면 재정 지원을 받아 인적 물적 자원에 자유롭게 사용해왔다.¹³⁾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종교성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입학 시켜 왔기에 다양성이 유지되고 또한 정부도 다양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다양한 종교와 윤리관이 학생들의 배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학교의 교사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서도 안 되며 어느 한쪽의 종교성향을 더 나은 것으로 인식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렇게 지켜져 왔다(Miedema, 2000: 288).¹⁴⁾

9)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2/04/26/2468163.html>. (검색일 2012. 4. 27)

10) <http://news.kbs.co.kr/politics/2012/04/27/2468580.html>. (검색일 2012. 4. 27)

11)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id=14186416>. (검색일 2012. 4. 27)

12) 최근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이슬람 계 보스니아 인들과 정교회 배경의 세르비아인들 그리고 카톨릭 계의 크로아티아인들 간에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의 참사를 포함해 25만 명이 죽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종교와 인종의 장벽이 높은 것을 다시 입증해 주었다.

13) <http://www.onderwijsinspectie.nl/english>. (검색일 2012. 4. 29)

14) 1813년 네덜란드 왕국이 건국되면서부터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비록 그 전 시대의 영향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시편 읽기 등이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었으나 신앙고백서를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더마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러한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종교적 성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은 다양한 세계관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1830년부터 시작해온 종교와 국가의 분리 정책은 ‘분리’정책으로만 실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리라고 하는 이름하에 종교를 공공 영역에서 분리하여 개인화(privatization)라는 벽 속에 가두어 두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종교의 무용성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가치관 중립적이지 않기에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 중립적”이라고 하는 국가의 입장은 가장 포스터모던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현 시대에서 ‘다양성’을 실제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다양하지 않게 종교 과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종교에 대한 인지적 정보(cognitive information)만 가르치고 있는 모순에 대해 미더마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공립학교 뿐 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다른 종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대도시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수리남, 모로코, 터키 등의 비화란 계 이주자들이 많은 이유로 출석 학생들의 50-90%가 기독교인이 아니다(Miedema, 2006, 287). 이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믿고 있을 때에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 속에서 다른 배경의 다문화 속의 다민족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하면서 기독교 학교가 종교교육을 어떤 모습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더마는 오즈머(Osmer)를 인용하면서 19세기부터 공립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방향을 세팅했던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차별성(differentiation)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일반 가정이 운영되는 원리와 방식은 전체 국민을 운영하는 국가(nation-state)의 것과는 ‘구별’된다는 원리이다. 운영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청난 재정과 훨씬 큰 스케일의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매니지먼트는 한 가족이 운영되어지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이다(Miedema, 2006, 287). 이런 이론이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도 공히 사용되어졌다. 이 이론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도 성, 종교, 사회적 배경, 그리고 종교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들을 국가의 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합(integrate)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과거에는 종교가 했었지만 이제는 학교가 그 역할을 맡게 되고 종교는 과거의 역사적 가치로 유물로 연구되고 기념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맡았던 사회적 역할을 찬탈한 것이다. 1830년에 제정된 교육법은 이런 구분을 명확히 했고 공립학교와 종교계 교단 사립학교와의 선을 분명히 했다. 이 법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공립학교들은 위에서 언급한 원리인 차별화 원리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며 교육해 왔다.

차별화(differentiation)이론 이외에도 세속화(secularization)이론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미국처럼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네덜란드처럼 하나의 종교과목으로 가두어 두는데 사용되는 논리이다. 이 내용은 “세속화의 과정으로 부모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자녀들도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논리이다(Miedema, 2006: 288; Dronkers, 1996: 51-66).

그러나 최근에 나온 종교 사회학 연구와 실천 신학 연구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에 종교 교육이 미국에서처럼 전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든지 혹은 네덜란드에서처럼 하나의 종교 과목으로 거의 인지적 정보로만 종교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그 기반을 잃게 되었다고 미더마는 강조한다(Miedema, 2006, 289).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론, 즉 차별화(differentiation) 이론과 세속화

(secularization) 이론이 무조건 받아 들여져야 할 이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세계가 글로벌화(globalization)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전처럼 문화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통의 발달과 빈번한 문화 교류와 정보의 전달로 인해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차별화가 아니라 통합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홀로 서 있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가장 큰 개념의 영역이 아니다. 한 국가의 시민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만 통합적 목적을 위해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된 것이다.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문화적 교류와 정치, 경제적 교류를 위해 적절히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될 때를 위해서 종교 교육이 필요함은 절대적인 것이다. 카사노바(Casanova)와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의 탈-개인화(deprivatization of religion)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과거에 종교란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 된 것이며 또한 사회에서의 전통적 통합 구성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에서 이제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개인의 범주를 뛰어 넘어 사회 전 영역과 지구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이다”(Miedema, 2006, 289).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더마는 특이하게도 단일종교 학교(mono-religious school)보다도 이제는 다-종교 학교(multi-religious school)를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하는 다-종교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Miedema, 2006, 295-296).

1. 교사들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공유하면서도 종교적 진리 주장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사여야 한다.
2. 초등학교 과정에는 종교에 관해 관념적, 이념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되 그 이후 중등학교 이상의 시기에서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3.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은, 특별히 1학년부터, 부모가 선택한 종교를 기존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실시 해왔던 방식으로 그 종교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교만이 참 종교인 것으로 가르치도록 구성한다.
4. 그러나 하나의 참 된 종교를 가르치되 교수 방식은 개방적 교수 방식이어야 하며 신조(dogma) 교육을 배제하고 강요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5. 종교 교육의 목적이 정체성 형성이라고 할 때에 교사는 학생들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태도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따라서 교사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다른 관점들에(이상, 가치, 진리 등)대한 적극적이며 비평적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할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ity)이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다-종교 학교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더마는 종단 사립학교와 국가의 공립학교라고 하는

이분 적 형태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매우 약하다. 네덜란드에서 지난 2004년 이후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단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 되어 오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교 교육이 종교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 중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다-종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사용하기는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본다.

흥미롭게도 그러나 이러한 미더마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초-종교(Inter-religious study)에 대한 연구 가 네덜란드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도에 영국 종교교육 저널(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게재되었다(Ter Avest., 2009: 251-262).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이지만 특별한 점은 종적연구(Longitudinal Research)이다. 즉 두 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10년간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변화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시기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한 것이다. 두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하나는 네덜란드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학교로 기독교 학교이지만 이슬람 종교교육과 기독교 종교교육을 같은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교이었다.¹⁵⁾ 두 번째 학교는 기독교 전통으로만 교육하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일반적인 기독교 학교이다.¹⁶⁾ 네덜란드를 오늘날 설명하자면 다양성(diversity)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학교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점으로 구별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뉜데¹⁷⁾ 첫째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만 진리라고 가르치는 '배타적 학교'이며 둘째는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최소한 포함시키고 있는 '포용적 학교'이며 셋째는 다른 종교와의 초-종교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생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 목적 중에 하나인 초-종교 준비 학교로 나눌 수 있다 (Ter Avest, 2009: 252). 이 두 학교 중 초-종교 학교에서 실행한 커리큘럼은 저학년 일 경우 학생들의 신앙 배경에 따라 기독교 교육 혹은 이슬람 교육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교육은 수업을 하시는 그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이슬람교육은 무슬림의 지도자인 이맘(Imam)을 초대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씩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주어졌다. 만 4살부터 6살까지는 두 종교의 공통성에 대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인 7살부터 10살인 학생들은 '다른 종교와의 만남'이라는 교과내용이 가르쳐졌고 초등학교의 마지막 두 해를 보내는 11살-12살 학생들은 '대화가 있는 만남'이라는 교과 내용을 교수했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려는 주요 주제는 '다른 종교적 전통에 있는 이야기에 접하게 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 발전 하는가에 있었다. 이런 주제를 놓고 29명의 학생들을 선택하여 10년간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Ter Avest, 2009: 258-259).

15) 학교의 이름은 Juliana van Stolberg 학교로 네덜란드의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이며 1989에 이러한 결정을 해서 기독교 학교지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1980년 후반 이후로 터키(Turkish)인들과 모로코(Moroccan) 부모와 자녀들의 대거 이주로 자녀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기를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16) 이 학교의 이름은 Prinses Margriet Primary School이다.

17) 학교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88년부터 1995년 사이에 연구가 진행되었다(재인용): Nipkow, K.E., Schweitzer, F. and Fowler J.W., 1988. *Glaubensentwicklung und Erziehung*. Gütersloh: Gerd Mohn; Ziebertz, H.G. and Ven van der, J.A. 1994. *Religious Pluralism and Inter-religious Learning*. Weinheim/Kampen: Deutscher Studien Verlag/Kok.; Schweitzer et al. 1995. *Religionsunterricht und Entwicklungspsychologie: Elementarisierung in der Praxis*. Gütersloh: Kaiser Taschenbücher.

1. 초-종교 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 보다 타 종교에 대해 탐구적 동향을 보인다.
2. 초-종교 학교 안에서는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이 새로운 세계관에 대하여 더 쉽게 받아들인다.
3. 이슬람 배경의 학생들이 종교적 전통에서 오는 권위에 대해 다른 기독교 학생들 보다 더욱 신뢰를 가진다.
4. 초-종교 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 보다 타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다.
5. 타 종교에 대해 노출됨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세계관에 대한 자기 성찰(self-reflection)의 효과가 증대된다.

이번 연구의 철학적 토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종교가 다 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진행된 연구이다. 다 문화 사회에서 종교의 핵심인 하나님/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10년간의 종적 연구를 통해 조사한 연구라는 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한 컨텍스트와 성(gender)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가정에서 경험되는 종교적 사회적 경험과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는 조사하지 못한 미흡함이 보인다. 또한 인터뷰를 통한 조사여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직접 조사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각 학생들의 교사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들과 학교가 협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발달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첨가 보장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V. 나가면서

본 연구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히 다 문화 다 인종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육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네덜란드의 종교 교육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종교 교육의 이슈, 둘째는 종교 교육과 종교적 헌신의 상관관계, 그리고 셋째는 다-종교 학교에 대한 이슈였다. 이러한 이슈들의 공통점을 한가지 들 수 있다면 두 가지의 다이내믹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긴장성의 문제이다. 즉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 작용의 이슈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힘은 서로 대치되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 사회에서 작용한다. 더 쉬운 말로 옮기자면 보수와 자유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혹은 좌파와 우파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수함과 안정에 그 가치를 두는 힘과 반대로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 자유함, 신선함과 다양성에 가치를 더 주려고 하는 힘의 관계이다.

네덜란드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종교의 힘, 즉 순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다양성의 힘이 영향을 미쳐 왔다. 다양할 대로 다양해진 네덜란드의 도시와 문화에 이제 다시금 순수성의 다이내믹으로 돌아가려는 펜들럼(시계추)의 작용이 눈에 드러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힘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냐고 하는 것이다. 종교 교육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신앙적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교육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 보여 진다. 특별히 다-종교 학교를 세워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다이내믹을 조화시켜 보려는 미더마(Miedema)의 노력 자체는 학술적 가치는 있는 일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순수성을 그리고 그 이후는 다양성에 학생들을 노출시켜 비평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종교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과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종교의 벽을 교과과정 혹은 더 나아가 교육으로 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자신도 이것이 ‘꿈’(dream)인가 아니면 가능한 현실적 필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Miedema, 2006, 297).

한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이러한 네덜란드 종교교육의 고민과 이슈를 어떻게 검토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조선말 개항과 일제 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올림픽 이후 겪어온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비 한국적(non-Korean) 영향이 급류처럼 쏟아져 들어온 상황에서 기독교 학생들의 신앙조차도 이미 순수하지 않은 비기독교적인 색채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 순수함의 다이내믹 쪽으로 힘을 실어야 중심적인 균형점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 문화 사회에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은 성경과 신앙과 삶의 ‘일치’와 삶의 ‘순수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교육하여 다 문화 다 종교 사회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으로 타협하지 않는 학생으로 세워가는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요인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가 네덜란드의 숙제였다. 종교교육의 전체적인 실시를 제안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어느 종교의 종교교육을 적용할 것인가의 질문에 있어서는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다양성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공동체적 집단적 유교적 세계관에서 서구적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가며 가정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3-4인 가구보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0%를 차지하는 시대이다. 더욱 개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다양성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혼란과 방황이 초래된다. 다양함을 묶어 줄 수 있는 통일성의 결여 때문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다양성과 순수성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원리인데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 할 때에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국은 불가능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통일성중 어느 다이내믹이 선 존재(pre-existing)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정체성 결여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선 이루어야 할 과제는 통일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제안하는 것은 첫째로 종교교과과정이 이러한 통일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은 세계화 현상과 다문화에 대응하여 종교 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의 기초가 ‘통일성’임을 일깨우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교육을 강조 하는 커리큘럼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는 뜻이다. 구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도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다양함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

다.

둘째로 네덜란드의 종교교육이 학생이 종교적 헌신을 실제로 가지게 되는 것과는 관계성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전인적 교육이 최상의 교육이다. 학교는 학생의 삶속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가정과 교회를 두 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축에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부모가 적극 참여 하는 학교를 세워야 한다. 학교에만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부모들이 해야 한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자녀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셋째로 종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채플 시간이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다양한 인간과 문화와 종교를 어떻게 순수한 하나의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통합적 세계관 교육이 채플 시간에도 필요하다.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반면 예배의 의미로서 성도의 성화 과정인 성도를 제자로 훈련해 가는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독교 학교도 드리는 채플과 실제 수업과의 괴리가 크다. 수업의 실제 내용이 채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수업이 채플 시간이나 종교 수업에서만 섭렵될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교과 수업에도 그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에서 강조하듯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세계관이기에 교과서가 심지어 일반 공립학교 교과서라고 할지라도 교사의 세계관만 바르면 얼마든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넷째로 종교 수업 자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이며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과서가 세속적인 교과서라도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면 그 수업이 기독교적인 수업이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직 교사와 미래의 교사를 위한 교사 세계관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이 지식으로만 습득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세계관 훈련이기에 장기간에 걸친 평생교육을 교사를 위한 훈련으로 학교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학교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도 수업 외의 시간이 어떤 경우는 참된 수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관계 형성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독교 학교가 매진해 나간다면 통일성과 다양성의 완벽한 조화는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Religious Education Issues in the Netherlands Christian Schools and the Implications

Abstract

Considering the current troublesome social issues of education, including the school violence, and the recurring issue of severe competition among students for college entrance exam, all of which have been in vicious cycle, it is deeply encouraging to see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ovement in recent years in Korea. Yet thes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have been facing another severe challenges, which include the poor financial situations, the wide gap between Christian principles and the practices, and the oversight from the government and indirect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u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needs to provide academic research as support for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been founded mostly within the last 20 years. What's lacking is the academic research on the Religious Education classes in the curriculum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In the second chapter, I will deal with the issue of religious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civic society; Chapter 3 deals with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igious education and the religious commitment; Chapter 4 deals with the issue of Multi-religious school. Having dealt with three significant current issues, I will evaluate, criticize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Finally, as the Netherlands, Korea also has been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which would require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in the field of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of th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for which I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unity of God revealed in God's creation ac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wholistic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in order to integrate faith and learning throughout the curriculum; lastly,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taking religion class, it is vital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religion class along with deep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

Keyword: Religious Education, Christian School, Multi-culture, Identity, Multi-Religious School

참고문헌

- 박상진·조인진 (2011).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3). 121-145.
- Bertram-Troost, G. D. (2006). *Belief in the Denominational Education: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Secondary Education*. Zoetermeer: Boekencentrum.
- Bertram-Troost, Gerdien and De Roos, Simone and Miedema, Siebre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Commitments and Explorations of Adolescents: on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in Dutch Christia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Beliefs & Values* 30(1). 17-27.
- De Wolf, A. and De Ruyter, D. and Miedema, Siebren (2003). “Being a Christian School in the Netherlands: An Analysis of ‘Identity’ Conceptions and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Beliefs & Values* 24(2). 207-217.
- Dronker, J. (1996). “Dutch Public and Religious Schools Between State and Market”. *Zeitschrift für Pädagogik* (35). 51-66.
- Kuyper, Abraham (193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Middleton, P. and Van de Ven, Ad (2009). *Key Figures 2004-2008: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The Dutch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 Miedema, Siebren and Bertram-Troost, Gerdien (2008). “Democratic Citizenship and Religious Education: 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Schools in the Netherlands.”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0(2). 123-132.
- Ter Avest, Ina and Bakker, C. and Miedema, Siebren (2008). “Different Schools as Narrative Communities: Identity Narratives in Threefold.” *Religious Education* 103(3). 307-322.
- Ter Avest, Ina (2009). “Dutch Children and Their ‘God’: the Development of the ‘God’ concept among indigenous and immigrant children in the Netherlands.”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1(3). 251-262.
- Wardekker W. and Miedema Siebren (1997). “Critical Pedagogy: An Evaluation and a Direction for Reformulation.” *Curriculum Inquiry* 27(1). 45-61.

Wardekker, W. and Miedema, Siebren (2001). "Denominational School Identity and the Formation of Personal Identity." *Religious Education* 96(1). 36-48.

Van Brummelen, Harro W. (1986). *Telling the Next Generation: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Calvinist Christian School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690701&sid=010620&nid=009<ype=1>. (검색일 2012. 4. 27)

<http://news.kbs.co.kr/politics/2012/04/27/2468580.html>. (검색일 2012. 4. 27)

<http://www.onderwijsinspectie.nl/english>. (검색일 2012. 4. 29)